

## 제60회 합격자 서채영



경남과학고등학교 졸업  
카이스트 학부 졸업  
카이스트 석사 졸업  
카이스트 박사 재학 중

키워드: 동차 합격 특하고득점 전체 3등

###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제60회 변리사 시험 합격자 서채영입니다. 저는 1차시험을 평균 86.66점 (민법 97.5점, 산재법 97.5점(특허 15번이 전원정답 처리되면서 100점), 자연과학 65점)으로 합격하였고, 2차시험을 평균 60.11점 (특허법 62점, 상표법 59점, 민사소송법 59.33점, 디자인보호법 58.66점)으로 합격하였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그렇듯, 저도 변리사 시험 입문할 때 합격수기를 많이 참고하였는데, 저의 합격수기 또한 후배 변리사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이 동차합격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길잡이가 되는 글이 되길 바랍니다.

### II. 변리사 시험 진입 (진입 전(진입 시) 상황 또는 진입 동기)

저는 현재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진입 전에는 제가 박사과정 1학기를 마무리한 시점이었는데, 1학기 동안 연구주제가 잡히지 않고 연구가 너무 재미없어서, 시간만 버리는 것이 너무 아까워 무작정 도서관에 가서 흥미로운 책들을 골라 읽곤 했습니다. 그때 '민법의 정석'이라는 책을 접했고, 민법 특유의 친숙한 느낌 덕분에 생각보다 법이 어렵지 않고 배워 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혼자 민법의 정석을 읽어보다가 변리사 시험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고, 찾아볼수록 합격하기 매우 어려운 시험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변리사 시험까지는 아니더라도, 민법 공부는 해두면 평소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2022년 새해부터 민법이라도 공부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1월에 건강문제로 수술과 입원을 하게 되면서 교수님과 상의 후 휴학을 결정하게 되었고, 2월에 기업과제 인수인계를 모두 마치고 2월 말에 본가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아무런 할 일이 없어지니 변리사 시험에 제대로 도전해보게 되었습니다. 시험삼아 쳐보았던 59회 1차시험에서 과락을 간신히 면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점수는 처참했지만 내용이 흥미로워서 한번 도전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바로 다음주부터 인강을 결제하고 기본서를 주문하여 제대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진입이 망설여지는 분들은 별다른 준비 없이 일단 1차시험에 한번 응시해보고나서 진입을 결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III. 시기별 공부방법

1. 초시 (20xx년 상반기 ~ 20xx 하반기)
2. 동차
3. 기득
4. 삼시 (1차 준비 과정 포함)
5. ...

### IV. 과목별 공부방법

1. 1차

과목/시기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	----	----	----	----	----	----	----	-----	-----	-----	----	----

민법 특허	이상윤 기본강의 임병웅 기본강의		이상윤 최신판례강의
상표		김영남 기본강 의	김영남 판례강 의
디자인		김용강 의	심사기준 개정된 내용 정리
물리 화학			
생물	최성욱 기본강 의		박윤 기본강의, 기출문제풀이강의
지구과학		박준희 기본강 의	

저는 대부분 기본강의만 수강하고 계속해서 기본서를 회독하였습니다. 다들 자신만의 공부방법을 잘 유지한다면 굳이 저처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주로 활용한 공부방법은 백지공부법이고, 그날 배우고 공부한 내용을 백지에 그대로 복기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 1) 민법 (39/40)

\* 교재: 민법의 정석, 민법공방연습, 객관식 민법

\* 기본강의 (2월말~4월초), 최신판례강의 (1월)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민법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되었습니다. 민법은 일반사법으로 생활밀착형이어서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도 생소하지 않고 술술 읽혀서 재미있었습니다. 처음 민법을 접했을 때부터 만점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해서 1차기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민법에 투자하였습니다.

주교재를 민법의 정석으로 선택한 것은 단순히 페이지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페이지 수가 적으니 확실히 손이 잘 갑니다. 그러면서도 있어야 하는 내용은 대부분 다 있었고, 민법의 정석으로 인강을 수강해도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객관식이나 기출문제를 풀 때 처음보는 판례들이 있으면 민법의 정석에 단권화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민법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인강 듣는 시간 제외하고 하루 공부시간이 8시간 정도 되었는데, 아무리 다른 과목이 급해도 그중 최소 2시간은 민법에 양보했습니다. 회독수는 체크하지는 않았지만 13회독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민법공방연습은 독서실에 있는 동안은 보지 않았고, 하루 공부를 끝내고 집에 와서 씻고 자기 전에 누워서 최소 2페이지씩 매일 풀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험 전까지 4회독은 돌린 거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항상 헛갈리고 틀리는 문제만 체크해놓고, 정리노트에 옮겨서 그 부분만 계속해서 눈에 익혔습니다.

회독은 민법총칙-물권법-채권총칙-채권각칙-채권총칙-채권각칙 이렇게 1회독으로 잡고 읽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채권파트가 뒤쪽이라 그런지 어렵고 헛갈렸기 때문입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물권법의 중요성을 느꼈고, 1회독에 저당권 파트를 한번 더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채권각칙에서 고용을 제외한 모든 파트를 달달 외웠습니다. 어느 파트라도 출제율이 떨어진다고 하여 공부하지 않으면, 만점 받을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저처럼 진입시점이 빠르거나 시간적 여유가 넉넉한 경우에만 추천드립니다.

기출문제는 10년치를 3회독 정도 하였고, 마지막 회독에서 단 한문제도 틀리지 않는 것을 보고 회독을 중단하였습니다. 매년 출제경향이 조금 다르기는 하나, 기출문제를 꼭 풀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최신판례입니다. 저는 최근 5년간 최신판례강의를 수강했고, 그 중에서 눈에 익지 않는 판례들로만 정리노트를 만들어 눈에 익혔습니다. 시험날 아침과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도 계속 보았습니다. 체감상 당시 최신판례의 비중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잘 풀 수 있었습니다.

## 2) 특허법 (20/20, 특허 15번 문제가 전원정답처리됨)

\* 교재: 리담특허법, 리담특허법조문정리, 리담특허법객관식, 리담특허법강의노트

\* 기본강의 (4월~5월)

교재에서 알 수 있듯이 저는 리담테크를 탔습니다. 진입 전에 어떤 강사님을 들을지 다들 많은 고민을 하실텐데, 저의 선택기준은 기본서에 있었었습니다. 비교적 시간이 널널한 1차기간에 사각지대까지 꼼꼼하게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에 두꺼운 책을 선호하였습니다. 저는 특허법 필수코스 패키지를 결제했으나 다른 강의 듣는 시간이 아까워 결국 기본강의만 수강하고 기본서 회독에 집중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패키지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민법 강의를 들을 때와 특허법 강의를 들을 때 마음가짐이 다를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민법은 가벼운 마음으로 너무 재미있게 듣다가, 특허법부터는 엄청난 진도에 당황하고 더 이상 발을 빼기 어렵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기본강의를 들으면서 두번의 고비가 있었었습니다. 정정 파트와 PCT 파트입니다. 특히 PCT는 수업 들을 때부터 물음표인 상태로 있다가 독서실에서 복습하면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그때가 제가 공부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던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은 책상에 머리만 푹푹 박고 있다가 일찍 정리하고 맛있는 밥을 먹고 왔습니다. 하루만에 복습하지 말고 3일 정도 걸쳐 넉넉하게 복습해야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고, 그때 제대로 공부해 둔 덕분에 2차기간에 별도의 공부 없이도 gs 문제로 PCT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항상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허법 공부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에 인강으로 기본강의를 듣고, 오후에 자리에 앉자마자 조문집을 펼쳐서 진도나간 부분까지의 조문을 토씨 하나 안틀리게 달달 외웁니다. 당연히 백지에 다 외웠는지 확인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세번 정도 써보니 외워졌습니다. 그리고 진도나간 부분을 기본서로 복습합니다. 강의노트는 수업들을 때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만 보았고, 대부분 기본서로 공부했습니다. 복습이 끝나면 해당 파트까지 객관식 문제집을 풀니다. 집에 와서 공부한 내용을 입으로 읊어보는데, 저는 저희 집 강아지에게 강의하듯이 진행했습니다. (나중에는 강아지가 너무 듣기 싫어해서 혼자 방에서 중얼대듯 읊었습니다.) 이후 회독수를 늘릴 때에는 매일 100 페이지씩 회독하였고, 2주 정도면 1회독 할 수 있었습니다. 기출문제는 객관식 문제집에 나와있는 것으로 풀었고 별도로 프린트해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1월쯤에 최신판례는 강의는 듣지 않았으나, 필수코스 패키지 결제자에게 자료가 무료 배부되어 혼자 쪽 읽어보았습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고 시험 직전이라 굳이 암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2차기간에 어차피 달달 암기하게 될 것이니 미리 암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상표법 (10/10)

\* 교재: 리담상표법, 리담상표법객관식

\* 기본강의 (6월)

상표법의 경우에는, 원래 수강예정이던 강사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수업을 못하게 되면서 급하게 다른 강사님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400 페이지 정도되는 기본서로 수업 진행하셨는데, 시험에 필요한 내용은 다 있지만 저는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었어서 리담상표법을 별도 구매하여 혼자 공부했습니다. 리담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가독성이 좋고 앞뒤 내용을 주석으로 연결시켜 유기적인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표법 공부루틴은 특허법과 같습니다. 산업재산권법은 민법에 비해 조문의 중요성이 훨씬 커서, 저는 기본서보다도 조문집을 더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상표는 조문이 곧 기본서 목차이므로 더 열심히 외웠습니다. 상표 시험문제는 말장난을 좀 치는 경향이 있어서, 특허와 달리 판례문구를 달달 외웠습니다. 사실 1차때부터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암기해둔 덕분에 2차기간에 3월부터 실전 gs에 뛰어 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담상표법에 최신판례나 중요판례는 판례원문이 첨부되어 있어서, 사실관계도 파악하면서 읽었습니다. 상표법이 다른 법과목에 비해 1차기간에 제대로 공부해두면 2차기간에 훨씬 편한 과목인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는 마찬가지로 객관식 문제집에 있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상표법은 법 개정이 많아서 예전 문제를 그대로 푸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강사님들께서 현재 개정법 기준으로 수정하신 문제를 푸시길 바랍니다.

#### 4) 디자인보호법 (10/10)

\* 교재: 김웅디자인보호법기본과이론, 보충교재, 리담디자인보호법객관식

\* 기본강의 (7월)

디자인보호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 강의수가 적어서 일주일만에 빠르게 수강했습니다. 다행히 개념이 쉽게 받아들여졌고 특허법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공부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해와 별개로 객관식 문제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충교재에 있는 기출문제, 객관식문제 뿐만 아니라 리담객관식도 모두 굵어모아서 계속 풀어보았습니다. 다른 산업재산권법과 마찬가지로 조문을 열심히 보았고, 2차 때 선택과목으로 할 생각이었어서 중요판례는 암기도 병행하였습니다.

1월 1일에 개정된 심사기준으로 모두가 혼란스러웠던 때에는, 다른 과목을 공부하면서 강사님이 정리해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정리본이 올라오고 나서야 공부를 하였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꼭 짚어주셔서 효율적이었습니다.

#### 5) 자연과학 (26/40)

\* 교재: 생물 정리노트, 박준희 기본서

\* 생물 기본강의 (4월, 8월), 지구과학 기본강의 (6월)

과학고등학교 출신이라 물리와 화학은 기본강의를 듣지 않았습니다. 59회 1차시험에서도 물리는 만점, 화학은 -3 정도였기 때문에 굳이 시간을 내어 강의를 들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nmr 부분만 따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여 노트에 정리하고 틈틈이 외웠습니다. 생물은 4월에 기본강의를 들었으나 특허에 치일 때여서 복습을 거의 못했고, 솔직히 얻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다시 기본강의를 들었고, 강사님들 책이 전부 마음에 들지 않아 혼자 캠벨을 보고 정리노트를 만들어 공부했습니다. 이 방법은 효율적 측면에서 상당히 비추입니다만 저는 돌아가도 제 정리노트를 만들 것 같습니다. 지구과학은 다른 분들이 쉽다고 말하는 것에 비해 저는 전혀 쉽지 않았습니다. 모의고사를 쳐도 항상 -3점도의 점수를 받았고, 만점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생물과 마찬가지로 정리노트를 만들긴 했으나 기본서를 더 많이 챙겨봤습니다. 자연과학은 대체로 기본서보다는 객관식 문제에 더 집중했고, 객관식 문제집을 별도로 사지는 않고 오픈카톡방에서 올려주는 문제를 주로 풀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정도 자연과학에 투자하려 노력했지만, 솔직히 건너뛰는 날도 많았습니다. 특히 시험이 다가오자, 자연과학은 거의 손을 놓고 평소 실력대로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처참한 점수를 받았고 어디 가서 과학고 출신이라고 말하기 민망하게 되었지만, 들인 노력이 별로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6) 시험 전날의 루틴 및 시험 당시의 대처

시험 한달 전부터는 독서실을 일찍 나와서 10시에 취침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대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시간을 줄이고 휴식시간을 늘리면서 번아웃이 오지 않도록 조심했고 마지막에는 나머지 책은 모두 창고에 넣고 기본서만 회독하였습니다. 솔직히 다른 합격수기에서 보았던 시험 전날 전과목 1회독은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시도해볼 생각도 없었습니다. 시험 이틀 전까지 평소 처럼 100 페이지씩 회독을 하다가, 시험 전날에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조문만 꼼꼼하게 읽어보고 민법 최신판례 및 중요판례 노트정리해 둔 것만 읽어본 뒤, 저녁을 먹고 일찍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응원문자에 답을 해주고, 아침을 먹으면서 민법 최신판례를 보았습니다. 시험장에 가서도 미리 표시해둔 부분만 숙고 보고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시험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 많았습니다. 특히 앞번호에 어려운 문제들이 포진하여 당혹감을 주었습니다. 항상 그렇듯, 모르는 문제는 넘겨가면서 아는 문제 위주로 골라 풀었고 다시 모르는 문제로 돌아와서는 '가장 정답에 가까운' 하나만을 선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3,5 번 지문을 처음보는 것이라도, 4번 지문이 답에 가까우면 3,5번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그냥 4번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옳은/틀린 것을 고르시오' 문제를 유의하여야 합니다. 마킹 전에 옳은/틀린을 한번 더 체크하였는데, 이때 '틀린'을 '옳은'으로 잘못 봐서 다른 답을 체크해놓은 것을 발견하였고, 다행히 정답으로 수정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시간이 남는다면 꼭 체크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시험이 끝나고는 바로 독서실에 들러 짐을 정리하고 집에 와서 채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을 위해 서울에서 자취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 7) 1차기간에 2차 과목 준비

저는 1차기간에 2차 과목을 상당히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3월 진입으로 진입시기가 너무 빨랐던 탓에, 9월부터는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빠르게 특허와 상표를 1회독하면서, 2차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박지환, 최지환 변리사님의 서술형입문 강의를 들었습니다. 다만, 변리사님께서 강조하셨던 답안지 작성은 해보지 않았고 그냥 저런 형식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정도만 파악하면서 들었습니다. 민사소송법의 경우 6월부터 7월까지 기본강의를, 7월부터 8월까지 사례강의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답안지 작성해본 적은 없습니다. 11월 중순 즈음에 민사소송법 심화강의를 수강하면서 다시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충분히 한 것 같고 루즈해질 때면 2차과목을 하나씩 수강하면서 스스로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그 느낌을 유지하면서 2월까지 시험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 2. 2차

과목/시기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특허법	서상철 기초 23	박형준 실전 23	이창한 양진하 실전 23A, 23B 사례집 1 회독 박형준 동차정리강의	이창한 기초 실전 23, 23B 서상철 박지환 한승준 실전 23	이창한 실전 22A, 23B 박형준 콜라보 23	모의고사 2 회 모의고사 1 회, 기출 1 회독
상표법	원해린 기초 23	사례집 1 회독 한경훈 실전 23	김세원 실전 23	최지환 실전 23	한경훈 콜라보 23	모의고사 1 회, 최지환 콜라보 23
디자인보호법			이준권 기초 23	이준권 실전 23		이준권 실전 23

볼드처리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장강의이고, 나머지 부분은 인강으로 수강하였습니다. 체력이 좋지 않아서 하루에 3gs는 못하고 평일에 1gs, 주말에 2gs를 수강했습니다. 2월 말에 1차시험을 마치고 처음으로 답안지를 작성해보았으며, 시험장에서는 민사소송법 21 페이지, 특허법 23 페이지, 상표법 21 페이지, 디자인보호법 20 페이지 작성했습니다.

많은 동차생들이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준비해야 한다는 불안과 혼란, 포기 속에서 동차기간을 날려버립니다. 어차피 2차를 한번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준비를 위해 천천히 차근차근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 사정으로 기득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무조건 동차합격만을 노렸습니다. 2차시험 결과 발표일이 제 생일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불합격 통지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합격자 평균이 3시라는 소문에 의거해, 3시만큼의 실력을 가지려면 3배 이상 공부시간을 확보해야 겠다고 생각했고, 먹는 시간과 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공부했습니다. 3.4월에 처참한 등수를 받으면서도 '7월의 나는 천하무적'이라고 세뇌하며 7월의 저만 믿으면서 달렸습니다. '지금의 나는 보잘 것 없지만 7월에는 다 부수고 다닌다'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물론 실제로 7월의 저도 여전히 애송이었지만 그런 세뇌가 가장 지칠 때 포기하지 않게 도와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 1) 민사소송법

\* 주교재: 통합민사소송법

\* 부교재: 사례민사소송법, 진도별민소법기출문제

\* 기본강의 (6월~7월), 사례강의 (7월~8월), 심화강의 (11월)

\* GS: 양진하 실전 23, 이창한 기초 23, 이창한 실전 22 A,B, 23 A,B, 모의고사 2회

동차생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과목이 민소소송법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1차기간에 중요 강의는 다 들어두었기 때문에 3월에 바로 회독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1차기간에 들었던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강의를 다시 듣기에는 시간이 아까웠기에 혼자 책을 읽으면서 이해하려 했습니다. 3월이 가장 혼란스러웠는데, 통합은 양이 너무 방대하고 사례집은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이해하려니 진도가 잘 안나갔습니다. 솔직히 3월은 자리에 앉아서 읽는 있었는데 크게 얻은 것이 별로 없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4월부터는 gs 문제를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게 별로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쓰려니 힘들었고 책을 보고 쓰는데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

했습니다. 아마도 전반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특정 논점만 찾아 옮겨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4월을 보내기는 아쉬워서, 암기를 시작했습니다. 전화 암기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매일 각자 일정분량을 외워와서 전화로 외운 것을 읊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차분과 함께 진행하다가, 그 분이 암기량을 감당하기 힘들어하셔서 그만두고 다른 기득분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암기에는 하루 최소 5시간을 투자했고, 전화암기는 보통 1시간 반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다보니 쓰기 시간을 제외하고도 민소에 하루 최소 6시간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민소에 전체 공부시간의 50~70%를 할애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는데, 저는 하루에 7시간을 민소에 투자하면 딱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안하는 날도 10시간은 채웠고, 많이 하는 날도 14시간을 넘기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소가 불안하면 합격과 멀어지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하루 7시간보다 더 민소에 투자하는 날이 점점 늘었고 어떤 날은 하루종일 민소만 14시간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6월초까지 전화암기를 진행하면서 앞뒤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었고 자연스럽게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암기가 쌓이면서 5월에 기초 gs에서 자주 모범답안으로 채택되었으며 6월에 실전B를 들을 때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씩씩하게 써내려갔습니다. 6월 실전 gs기준으로 평균 5~10% 이내의 등수를 항상 받았습니다. 7월에는 gs 문제 복습+기본서 회독을 병행했습니다. 겹치는 gs 문제는 과감하게 무시하고 연결되는 문제 위주로 계속해서 복습했습니다. 이때 복습은 목차잡기까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험 직전에 본 모의고사에서는 5% 안쪽의 등수를 받아 마음 놓고 시험치러 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논점별로 학설, 판례, 검토 순으로 기재를 할텐데, 저는 검토를 외우는 것이 좀 힘들었습니다. gs에서도 검토에 대충 말이 되게끔 써넣으면 점수를 다 챙겨주었기 때문에, 암기의 필요성을 잘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멍때리거나 생각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암기가 필요했고, 저는 셀프 가스라이팅을 하였습니다. 조금 웃길 수 있지만, '이것만 외우면 합격하는데 안 외울거야?'라며 스스로를 다그치면 저는 '합격할 수 있다는데 이거쯤이야'라면서 외우곤 했습니다. 물론 저는 저 스스로를 잘 알아서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이고 다른 분들께서는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 2) 특허법

\* 주교재: 준특허법

\* 부교재: 준특허법기출문제집, 정상특허법, 정상특허법판례집, 테마특허법사례집

\* GS: 서상철 기초, 박형준 실전, 박형준 기초, 박형준동차정리강의 서상철 실전, 박지환 실전, 한승준 실전, 박형준 콜라보, 모의고사 1회

합격수기를 볼 때 자주 보았던 말이, '동차 때는 민소가 가장 어려운데, 기득 이상부터는 특허가 가장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동차 때 느끼게 될 줄은 몰랐지만, 정말 특허는 공부를 할수록 더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6월에 모든 과목 중에서 특허에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며 '이렇게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2월에 1차시험이 끝나고 그 다음날 서울로 올라와 다시 그 다음날부터 기초 gs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제대로 집중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열정 넘치는 눈으로 수업을 듣는 다른 수강생분들을 보니 저도 나를 사기가 충전되었습니다. 3월에 호기롭게 실전 gs에 뛰어들었지만 논점파악이 제대로 될리가 없었습니다. 같은 실전을 듣는데도 상표와 달리 특허는 암기가 거의 되어있지 않아 처참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등수로는 60%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채점평에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겠다. 그렇지만 아직 3월이니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응원글이 꽤나 있었습니다. 4월에는 현장 gs를 쉬고 암기를 시작했습니다. 기초 gs를 함께 들은 수강생 중에 한명으로 구했고, 매일 오전 10시에 전화를 걸어 암기한 내용을 읊었습니다. 기본서를 두 번 정도 돌리고 전화암기를 마무리했고, 암기가 쌓이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남은 시간에 인강으로 기초 gs를 한번 더 돌리고 사례집도 한바퀴 돌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돌린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목차잡기까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월에는 인원이 30명 정도 되는 중형강의에서 항상 1~2등의 등수가 나오는 것을 보고 한시를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현장 뿐만 아니라 인강도 강사를 가리지 않고 수강했는데, 혼자 하면 하기 싫어질 것 같아서 스터디원과 (통성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글 문서로 답안지 스캔해서 올리면 서로 코멘트 달아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6월에는 콜라보 gs를 수강했는데 마찬가지로 5% 이내의 등수를 유지했습니다. 모의고사에서도 1등한 것을 보고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장에 갔습니다. 시험 전날에는 기본서에서 미리

메모해둔 부분만 읽고, 조문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시험날 아침에 미리 준비해둔 20점짜리 문제를 손풀기용으로 풀어보고 갔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특허고득점을 받게 되어, 특허법 공부방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작성해보려 합니다. 저는 다양한 강사님 강의를 수강했으나, 기본서로 준특허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초 gs 강사님의 기본서를 활용했지만, 박형준 강사님의 4월 동차용 정리강의를 듣고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기본서를 중간에 바꾸는 것은 꽤나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도 큰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① 4월 동차용 정리강의를 통해 꼭 보아야 하는 논점을 집어주셔서 다른 기본서로 돌아가 정리하느니 아예 준특허로 복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한 점, ② 다른 기본서에는 없고 준특허에만 있는 판례들이 조금 있는 점 (결론적으로 시험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무조건 동차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빈구멍이 생기는 것이 싫었습니다), ③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준특허법을 기본서로 활용하는 점을 이유로 기본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수험생들 모두가 모르는 내용은 저도 몰라도 되지만, 다른 수험생들이 다 아는 내용을 저 혼자 모른다면 시험장에서 너무 치명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반도체 연마패드 문제가 준특허에 제시된 상향 그대로 출제되었기에 기본서를 바꾼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서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소와는 달리,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 외우지는 않았고 해당 단원에 존재하는 논점의 개수와 각 논점마다 학설-판례-검토를 최대한 많이 암기했습니다. 판례를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암기했고, 그 다음으로 학설은 키워드만 챙겨서 암기했습니다. 검토는 외워지면 외우고 아니면 그냥 넘어갔습니다. 공부를 할수록 특허가 어렵게 느껴졌는데, 앞부분 보다는 뒷부분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서 심판-소송 파트 회독수를 늘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최신판례와 심판-소송 파트만 미친듯이 보고 또 보고 있는 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1조 특허법의 목적'과 같이 솔직히 시험에 나오기 어려운 부분은 회독 때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중요성이 낮다는 뜻은 아니고, 동차생이다보니 짧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험적합하게 공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신, 특유청구항과 특유발명 파트에 집중했습니다. 워낙 기출되지 않은 A급 판례가 쌓여 있는 파트였기에, 선택발명, 수치한정발명, 파라미터발명, 컴프발, PBP, 기능식, 잼슨청구항까지는 전부 챙기면서 어떤 논점이 있고 각 논점별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판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암기했습니다. 스터디원이 '파라미터 발명에 대해 아는데로 설명해주세요'라고 질문하면 '의의 취지는 ~~. 신규성 판단 시 판례는 ~~. 진보성 판단 시 판례는 ~~.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빠진 내용이 있을까요?'라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책을 보지 않고 해당 파트에 관한 모든 논점을 고집어 낼 수 있을 정도로 회독했고 판례는 토씨 하나 안틀리게 암기했습니다. 이때 대법원 판례는 당연하고 특허법원 판례까지 모두 암기하였습니다. 시험장에서 넘치는 배점을 받고 쓸 내용이 없어서 당황하는 것보다는 뭐든지 쓸 수 있게 많이 준비해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스터디원과 답안지 교환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칭찬이 '판례키워드 현출이 너무 좋고, 그대로 사안포섭한 것까지 너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판례 암기가 잘 되어있다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방증이며, 사안포섭 시 이를 활용한다면 문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므로 이 두 개는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후적 고찰을 해보자면, 대부분의 시험문제는 gs에서 한번 이상 보았던 문제였습니다. 일부 조치문제들이 새롭고 익숙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모두에게 평등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gs에서 모두가 함께 본 문제라도 시험장에서의 답안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gs에서 만났던 논점들은 별도로 기본서에 체크해두고 어떻게 답안 구성하는지 눈에 익혔습니다. 2차 교재는 논점별로 답안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님 답안을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해당 논점을 시험에서 맞닥뜨렸을 때 배점별로 어떻게 답안지를 구성할 지 생각해보면서 공부했습니다. 만약 훨씬 작은 배점으로 출제된다면 무엇보다 버릴 것인지 생각해보면서 그때그때 배점 조절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배점을 바꿔보고, 다른 판례와 연결해서 생각해보고, 조치 종류만을 단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조치가 그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일지, 강사 답안지 외에 다른 조치는 없을지 고민하면서 공부한 것이 고득점이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허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결국 기본서 회독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3) 상표법

\* 주교재: 데생상표법

\* 부교재: 데생상표법판례집, 테마상표법사례집, 아이지상표법

\* GS: 원해린 기초, 한경훈 실전, 김세원 실전, 최지환 실전, 한경훈 콜라보, 최지환 콜라보, 모의고사 1회

상표법은 비교적 노력을 덜 한 과목입니다. 1차기간에 상당 부분 암기를 해 놓은 상태였어서 3월에 바로 실전 gs에 들어가도 괜찮았습니다. 등수는 대체로 20~30% 정도였고 가끔씩 5% 안쪽으로 들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가독성, 목차 라벨링, 논점 파악, 논리전개가 모두 좋다는 언급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글씨가 예쁘다는 평이 많았는데, 이는 3월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암기는 조금씩 병행하여도 전혀 무리가 아니었고, 4월 실전에서는 15% 근처의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5월에는 현장 gs를 쉬면서 부족했던 민소나 특허에 더 집중하였고, 인강으로 gs를 하나 들으면서 감을 유지했습니다. 6월 콜라보에서는 5% 이내의 성적을 계속 유지하였고 상표가 합격에 방해가 되지는 않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본서를 주로 보았지만, 특허에 비해 판례집을 자주 본 편이었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선고된 판례나 A급 판례는 사실관계를 확실히 파악하고 원문을 달달 외웠으며, 각 조문별로 포함된 판례가 몇 개 있고, 각각 다 완벽하게 암기되어 있는지 확인하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34조1항13호를 떠올릴 때, 기본서의 해당 페이지가 머릿속에 연상되면서 차례대로 어떤 판례들이 있는지 기억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올해 사식취문제에서 당황하지 않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험 전날에는 미리 체크해둔 판례들만 꼭 읽고 조문을 한번 더 읽었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특허에 치여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 4) 디자인보호법

\* 교재: 지인디자인보호법, 지인디자인보호법판례집

\* GS: 이준권 기초, 이준권 실전, 이준원 실전

디자인보호법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된 과목입니다. (어쩌면 상표법보다 더...) gs에서는 거의 항상 모범답안으로 채택되었으나 답안지가 풍성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선택과목에서 과락이 나올거라는 생각은 한번도 한 적이 없지만, C급 논점이 안 나온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불안함을 애초부터 없애기 위해 구석구석 꼼꼼하게 공부했습니다. 심사기준도 전부 암기하다보니 생각보다 들인 노력이 많아졌습니다. 다들 왜 공부내용의 70%가 조문에 있는 저작권법이 아닌 디자인보호법을 선택하였냐고 물어보았지만,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우선 1차과목과 중복되어 기본개념을 다시 익힐 필요가 없다는 점, 문제로 나올만한 논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이 큰 메리트가 되었습니다. 저는 판례집도 꼼꼼히 보았는데, 기본적으로 해당 사건에서 결론(유사/비유사)이 어떻게 났는지 암기하였고 그때 등장한 법리를 순서대로 기억해 두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유사/비유사를 묻는 문제가 많은데, 시험장에 가서 처음 보게 되면 당황해서 다른 결론으로 이끌어 나갈수도 있으므로 유사/비유사 결론 정도는 꼭 암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5) 동차기간에 사례집 활용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동차기간에 사례집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례집 회독은 단원별로 가능한 많은 판례와 논점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접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수학문제집에 웬만한 문제유형이 다 포함되어 있어, 모든 유형을 익히고 조금의 응용력을 더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차기간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례집 회독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3,4월에 공부방향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던 때에 특허와 상표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여주고 빈출 논점을 빠르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잘 없겠지만) 기본서로 정말 열심히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체계가 잡히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사례집을 한번 정도 돌려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특별히 추천하는 사례집은 없습니다. 저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례집을 활용했지만 새로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서와 같은 강사님 책을 추천드립니다.

당시 저는 시간이 소중한 동차생이었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못하고, 특허와 상표 각각 1주일씩 투자하였습니다. 각각 140 문제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하루 20 문제씩 매일 6시간 정도 풀었고 남은 7시간은 당연히 민소에 투자했습니다. 문제를 읽고 목차까지 잡는데 4~6분 정도 타이머로 측정해가며 시간이 밀리지 않게 조심했고, 이후 답안지와 비교해보는 시간을 15분 정도 가졌습니다. 다만,



암기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례집을 읽으면 예상시간보다 훨씬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암기가 어느 정도 선행된 상태에서 돌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험생들마다 상황이 다를테니, 각자의 현재 상황에 맞게 사례집 활용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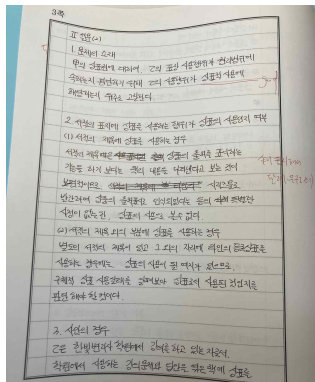
## 6) 시험 전날의 루틴 및 시험 당시의 대처

이 부분도 수험생마다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시험 전날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편이어서 시험 이를 다 전날에 오후 8시쯤 공부를 마치고 들어와 씻고 9시전에는 잠에 들었습니다. 솔직히 약간의 긴장이 있어서 꼭 잤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잠에 들러 노력했습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시험 전날 기본서 1회독은 저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어서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목요일 오전에는 상표 조문과 체크해둔 판례를 빠르지만 꼼꼼하게 읽고, 오후부터는 특허에 매진했습니다. 준특허에 미리 체크해둔 부분을 꼼꼼하게 보고 어디서 실수가 많았는지 떠올리면서 포스트잇에 정리해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문을 꼼꼼하게 1회독 했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일어나서 손풀기용 문제를 풀고 간단히 죽을 챙겨먹고 1시간 동안 지하철을 환승해가며 시험장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시험이 끝나고 집에 와서 밥을 챙겨 먹으니 오후 5시가 넘어갔고, 민사소송법 조문만 꼼꼼히 챙겨보고 바로 씻고 잠들었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다시 손풀기용 문제를 풀고, 조금만 더 버티자는 생각으로 시험장에 갔습니다. 무더위에 이틀연속 무거운 가방을 매고 왕복 2시간을 하였으니 시험장에서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전날과 다른 컨디션을 느끼며 약간 낯익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애써 억눌렀습니다. 1교시까지 정신없이 보냈으나 점심시간부터 머리가 아프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해서, 다들 선택과목을 공부할 때 과감하게 엎드려 잤습니다. 다행히 컨디션이 조금 나아져서 마지막 과목도 무난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7) 기타 (목차, 글씨, 조교활동)

목차를 잡는 분도 계시고 안 잡는 분도 계시는 텐데, 저는 목차를 안 잡는 쪽이었습니다. 3월부터 안 잡다가, 4월쯤에 내용을 적게 쓰더라도 깔끔하게 써야겠다고 생각해서 목차 잡는 연습을 따로 하였습니다. 목차를 잡으면서 쓰다보니 답안지가 풍성하면서도 깔끔해졌고 gs 점수도 더 잘 나왔습니다. 5월에 7gs를 하면서 대부분의 논점에서 정형화된 목차를 체득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 목차를 잡지 않고 바로 답안지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장단점이 있겠으나, 확실히 목차 잡는 시간이 없어지니까 답안지 분량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점수도 조금씩 오르는 듯하였습니다. 분량+점수와 직결된 것은 아니지만, 적게 작성하는 것보다는 많이 작성하는 것이 점수 획득에 유리한 것 같기는 합니다. 목차 잡는 것은 각자의 편의에 맞추어 연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글씨는 당연히 반듯하고 예쁘면 좋겠지만 필속이 느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글씨가 예쁜 편이었어서, 필속을 늘리기 위해 글씨를 날리는 연습을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날려도 앞뒤 문맥을 고려했을 때 인식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듯했습니다. 아래는 2월말과 6월초의 제 글씨입니다. 6월초의 글씨는 확실히 날아가긴 하지만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울 정도는 아닙니다. 덕분에 6월부터는 필속이 빨라져 웬만하면 gs에서도 20페이지 이상 작성하였습니다.



월비스 강의는 수업마다 조교를 뽑는데, 조교가 되면 수강료가 면제되는 장점이 있



본서를 계속 읽었고, 사후적 고찰을 해보자면 그것이 정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차기간 내내 자신감이 요동쳤으나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4시생의 심정에 이입하여 '나는 4시생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다'하고 세뇌했습니다. 실제로 시험이 끝나고 책은 전부 본가의 창고에 집어넣고 한 번도 펼치지 않았고 합격발표까지 3개월간 감사담안지를 비롯한 모든 자료를 보지 않고 현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불합격한다면 '변리사는 내 길이 아닌거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마인드컨트롤이 동차합격의 원동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2. 공부장소, 시간 관리

1차는 본가 근처 독서실에서, 2차는 역삼근처에서 자취하여 역삼푸른솔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독서실에서는 마감알바를 하여 새벽 1시에 소등하고 문 잠그는 역할을 함으로써 1인 좌석을 무료로 제공받았습니다. 어차피 저는 1시가 넘어서 집에 와서도 공부를 좀 더 하다가(잠들기 전 민법 ox문제를 2페이지 정도 푸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잠들었기 때문에 새벽 1시가 저에게 무리한 시간을 아니었습니다. 다만, 1차 시험 직전에는 생활리듬을 바꾸기 위해 10시에는 잠들어서 새벽 5-6시 정도에 일어나야 했으므로, 알바를 그만두고 돈을 내고 다녔습니다. 역삼에서 거주하시는 분들께 역삼푸른솔도서관은 제가 정말 추천하는 공부장소입니다. 대학교 도서관과 비교하여 시설적인 측면에서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자취방 보다 도서관이나 독서실로 나가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는 도서관은 '공부하는 장소'로 인식되어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령층이 다양하다 보니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리고 마감시간에는 근처 술집에서 고성이가 들립니다. 그리고 별도의 휴게실이 없어 전화암기를 할 때 비상용 계단에 쭈그러 앉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도서관 휴관일에는 자취방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0시에 마감하기 때문에 공부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려면 오픈시간인 아침 7시부터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는 거의 항상 도서관에 1등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1차기간에는 인강 듣는 시간 포함하여 하루 평균 10-11시간 공부했고, 2차기간에는 13-14시간 공부했습니다. 다만, 2차기간에는 쉬는 날이 하루도 없었던 것에 비해 1차기간에는 종종 쉬는 날을 가졌습니다. (1년간 3일 정도는 아예 쉬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기 싫거나 늦게 자리에 앉은 날, 또는 코로나에 걸려서 해롱한 날은 최소 공부시간인 8시간만 채우고 나머지 시간은 쉬었습니다.

## 3. 스터디

추천받은 스터디로 '공부시간 인증 스터디', '휴대폰 사용기록 인증 스터디' 등이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성향 상 공부시간은 스스로 잘 관리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했던 스터디는 1차 때, '자연과학 인증 스터디'로 매일 자연과학 중 어떤 과목이든 한 문제라도 푼 것을 인증하는 스터디였습니다. 하루 종일 민법만 하고 싶은 마음을 달래서 조금이라도 자연과학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게 하는 긍정적 기능이 있었습니다. 2차기간에는 '전화암기 스터디'를 과목별로 진행했습니다. 상표는 네이버 카페에서 구했고, 특허와 디자인보호법은 기초gs 수강생 중 한 명과 진행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한빛 스터디 게시판에서 구했습니다. 민소는 양이 너무 많아서 잡담은 일절 하지 않고 (서로 통성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일에 각자 50페이지씩, 하루 100페이지를 쭉 암기하였습니다. 한 사이클이 지나면 구역을 나누어서 다시 50페이지씩 암기한 것을 읊었고, 이를 4사이클 정도 하였습니다. 특허와 디자인보호법도 마찬가지로 구역을 정해 번갈아가면서 암기한 것을 읊었습니다. 이때는 약간의 잡담도 있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심사기준을 암기범위에 포함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스터디원과 전화를 할 때가 제 수험생활 중 가장 마음이 편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상표 전화암기 상대가 4시생이었는데, 저의 2차 합격에 가장 도움주신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차생과 스터디를 진행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끊임없이 칭찬해주시고 답안 구성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기본서 암기를 진행하였고 어느 순간부터는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주어졌는데, 어떤 판례를 쓸 것이고 어떻게 답안을 구성할 건지 설명해주세요', 또는 '~~판례 외운거 읊어주세요'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어 gs에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보더라도 당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스터디원들을 만나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합격수기를 제안받았을 때에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공부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험 이후로 현생에 완벽 적응하여 수험생활이 가물 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합격수기로 도움받았듯, 미래 변리사님들께, 특히 스터디원들께 정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합격수기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 4. 수험생활비

제가 꼭 도움이 되고 싶었던 부분이 재정문제입니다. 저는 대학원 진학 후 부터는 부모님께 아무런 지원도 받지 않고 있었는데, 수험생활을 시작하면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차는 본가에서 준비해서 생활비가 들지 않았지만, 2차는 서울에서 자취를 하였고 때문에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월세와 학원비는 부모님께서 도와주셨고, 식비 기타 생활비는 동생이 지원해주었습니다. 공부만 하기에다 벽찬데 금전적 문제까지 있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금이나마 수험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집 근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였고, 수업 조교를 신청하여 수강료를 면제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본분인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하였으며, 대형강의에는 조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독서실 다닐 때에는 마감알바를 하여 좌석을 무료제공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만 하였고 2월부터는 알바를 그만두고 유료로 다녔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께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5. 수험 기간 중 제일 기억에 남는 일

2차기간에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던 중, 엄마가 전화 와서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어?'하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당연하지...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있으면 수석해라...'하고 힘없이 대답한 기억이 납니다. 결과가 나오고 보니 저보다 열심히 한 분들이 정말 많으시지만, 그때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 스스로나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하루를 되돌아보았을 때, 후회가 없을 정도로 공부하여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미련이 없는 수험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 VI.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수험생활 동안 저를 항상 응원해준 가족, 친척, 친구, 강사분들 모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빠르게 그 응원에 보답할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베풀며 살겠습니다. 소중한 청춘을 공부하면서 날리는 게 아쉬울 수 있지만, 저는 그 과정도 행복했습니다. 매일같이 새벽에 저를 마중 나와준 저희 집 막내 오복이, 집에서 독서실 가는 길에 흘날리던 빛꽃, 여름에 갑자기 쏟아지던 소나기, 시험이 다가오면서 피부로 느껴지는 한기까지 모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축복인 1년 5개월이었습니다. 미래 변리사님들께서도 찬란할 미래를 꿈꾸며 수험기간을 잘 가꾸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 합격자 TIP. 동차 고득점 노하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모든 수험자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공부하고 계실 텐데, 주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공부를 계속하시다 보면, 어느덧 합격에 도착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동차합격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합격자 수기도 동차합격자 수기만을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의 상태와 당시 그분의 상태를 비교해서 어느 것을 더 발전시켜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고득점으로 합격하게 되었지만, 사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 고득점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부족한 체력과 암기력으로 동차합격을 꿈 꾸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공부시간 확보'입니다. 매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도서관이 오픈하는 7시 정각에 출근도장을 찍었으며,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부에 투자했습니다. 꿈에서도 공부했던 내용이 나와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렸습니다. 동차생에게 가장 큰 무기는 '패기'라고 하였습니다. 동차합격이라는 목표를 세우셨다면 그 일념 하나로 시험 당일까지 달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랬듯, 모든 수험자분들께서 후회 없는 수험생활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